현불 논단

코로나19와 'New Normal'

황순일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코로나19 전세계적 유행 상황
이전과는 다른 세상서 살아야
'New Normal' 관련 담론 多

유럽 · 미국 등 부실한 대처로
"서구화가 정답 아니다" 확인

초감시체제 대한 비판있지만
구성원 간 '새로운 표준' 인식
불교 '업설' 중요해지는 시대

코로나19의 위세가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지만, 조심스럽게 코로나19 이후의 우리 사회를 예측하고 미리 대비할 준비를 해야 할 시점에 왔다. 해방 이후 우리 사회는 오랜 세월에 걸쳐 다양한 경험들을 해왔지만, 이번 코로나19처럼 사회 전반에 깊은 파장을 미치고 개개인의 생활을 변화시킨 예는 드물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코로나19 이전과는 전혀 다른 코로나19 이후의 사회를 살게 될 것이다.

이는 이전에는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였던 현상과 표준이 점차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현상과 표준으로 자리 잡는 것으로서, 경제학에서 '새로운 표준(New Normal)'이라고 한다. 이 용어는 미국에서 2007년 이전의 오랫동안 지속된 호경기를 끝나고 2008년의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사태로 촉발된 금융 위기와 2012년까지 이어진 오랜 경제침체기를 겪으면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가 지속되는 것을 지칭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이전에 우리에게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였던 현상과 표준이 이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과 표준으로 자리 잡은 것에 어떤 것이 있을까?

1990년대 이후 우리 사회를 이끌었던 서구화의 부작용이 여실하게 드러났다. 우리나라의 수출 주도 경제구조와 맞물려서 오랜 시간동안 사회는 서구화 일변도로 변화해 왔다. 하지만 우리의 서구화가 지향한 목표였던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들이 코로나19에 우왕좌왕하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더 이상 서구화만이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답이 아니란 것을 모두가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다. 새삼스럽게 우리 사회는 우리가 가진 것에 고마워하게 되었고 한국적인 가치와 문화에 대해 스스로 자긍심을 가지는 계기가 만들어진 것이다.

사실상 유럽의 몇몇 국가들과 일본은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의 퇴보를 꼽으며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면적에 많은 사람들이 집적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초현대적인 정보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은 마음만 먹으면 이러한 정보인프라를 활용하면 손쉽게 추적할 수 있다.

초연결시대를 상징하는 스마트폰의 엄청난 보급률과 도시 구석구석에 설치된 CCTV 그리고 개별 차량 대부분에 설치된 블랙박스와 카드전표를 통해서 개개인의 동선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조지 오웰(George Orwell)이 소설 〈1984〉에서 비판했던 빅브라더가 오늘날 우리 사회에 새롭게 나타났다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초연결시대에 일종의 부작용으로 여겨졌던 초감시 체제가 대한민국의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 부상했던 것이다. 사실상 우리들은 이러한 정보 인프라를 통해 개개인의 자유가 억압될 수 있다는 인지하고 있음에도 코로나19의 사회적 확산이 가져다줄 거대한 파장 때문에 어떠한 저항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초감시 체제가 우리 사회의 새로운 표준(New Normal)으로 자리 잡게 사회구성원 대부분이 받아들이게 되어 버렸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이후 초감시 체제에 들어간 우리 사회에서 불교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개개인이 스스로의 삶을 깨끗이 하고 선하고 착한 의도를 가지고 생활하면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사회 전체가 깨끗해질 수 있다는 불교의 업설을 통해 개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러한 감시와 통제 없이도 충분히 밝고 건전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새로운 변화를 이끄는 중심에 불교가 위치하지 않을까 한다.

社 說

차별금지법, 이제는 제정돼야

차별금지법의 제정목적은 명확하다. 바로 인권 보호다.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성적지향성,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등을 이유로 고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등 모든 분야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편견에 뿌리를 둔 증오와 혐오, 또 이로 인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평화롭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안임에도, 2007년 첫 입법시도 이후 1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정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정부를 비롯해 차별금지법 제정에 미온적인 국회 주요정당은 '아직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핑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인권은 절대로 합의의 대상이 아니며,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기본권에 속한다.

'사회적 합의'의 기준도 모호하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대부분이 개신교계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개신교계는 "차별 금지에는 동의하지만 성적소수자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소위 말하는 '동성애'가 교리에 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혜영 국회의원에 따르면 여성정책연구소 여론조사 결과 90%에 가까운 응답자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의했다. 국민 10명 중 9명이 동의할 뿐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는 법안을 종교적 반대에 밀려 제정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조계종은 4.15총선을 앞두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정책제안 목록의 하나로 발표했다. 모든 생명이 평등하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차별금지법이 추구하는 바와 같기 때문이다. 편견은 혐오를 낳고, 혐오는 증오가 되며 증오는 폭력이 된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가 마련돼야 할 때다.

세종시 불교문화체험관 착공에 부쳐

세종특별자치시에 불교전통문화를 체험하고 불교를 신행할 수 있는 현대적 도량을 건립된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조계종 불사추진위원회는 6월 17일 세종시 연기면 세종리 산82 일원에서 전월산 광제사 대웅전과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을 위한 착공식을 봉행했다.

조계종이 추진하는 세종시 불사는 '한국불교문화체험관'과 '전월산 광제사'이다. 특히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은 1662평 규모로 지어지는 데 이곳은 불교미술 · 공예와 승무 · 범패 등 공연, 참선수행을 체험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구성된다. 이를 위해 체험관에는 상설 · 기획전시관과 공연시설, 체험 · 교육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세종시에는 전통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시설이나 문화재가 부족해 조계종이 추진하는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불사는 이를 보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함께 건립되는 전월산 광제사는 세종시와 충남권 지역 불자들의 신행을 책임질 도량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나아가 전월산 광제사 아래에는 중앙공원, 호수공원과 국립수목원이 건립될 예정이어서 세종시를 대표하는 문화 · 힐링지구로 발전될 전망이라고 한다.

새롭게 지어지는 한국불교문화체험관과 광제사는 전통불교문화를 체험하는 공간이자 승가 · 재가 · 시민이 함께하는 도량이 돼야 한다. 체험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관광산업 활성화를 책임지고, 신행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충남권 포교를 담당하는 지역포교 전진기지로 나서야 한다. 조계종의 세종시 불사가 원만회향하길 기원한다.



지원 스님의
마음처방전

긍정적 생각이 성공 부른다

긍정적인 생각은 그 어떤 어려운 일도 능히 이룰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어떤 행동으로 옮기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1950년대에 실제로 있던 일입니다. 영국 컨테이너 운반선 한 척이 화물을 내리기 위해 스코틀랜드의 한 항구에 닻을 내렸지요. 한 선원이 모든 짐이 다 내려졌는지 확인하려고 냉동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갔는데, 다른 선원이 확인도 않고 냉동실 문을 닫아버렸어요. 선원은 있는 힘을 다해 벽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고, 배는 포르투갈을 향해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있는 힘을 다해 쇠 조각 하나를 들고 냉동실 벽에 자기가 겪은 고난의 이야기를 시간과 날짜별로 새겨 나갔습니다. 죽음의 고통을 기록한 셈이지요.

마침내 배가 리스본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냉동 컨테이너 문을 연 선장은 죽어 있는 선원을 발견했어요. 선장은 벽에 자세히 적힌 고통스런 일기를 읽어 내려갔지요. 컨테이너 안의 온도가 섭씨 19도인 것을 확인한 선장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컨테이너에 화물을 싣지 않았기에 당연히 냉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선원은 냉동 창고기 때문에 춥다고 생각했으며, 그 상상 때문에 얼어 죽고 만 것입니다. 자신의 상상력과 부정적인 생각이 그를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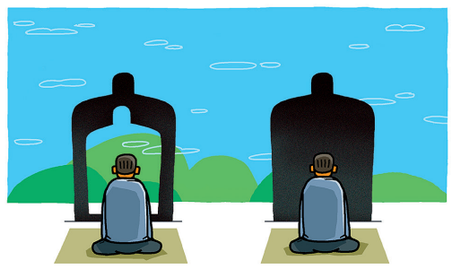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생각은 인간이 가진 가장 원초적인 힘의 발산이며, 때론 신통력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이 끝나고 일본에 건너간 사명대사의 이야기도 많은 가르침을 줍니다.

사명대사는 왜병들에게 잡혀 철통에 갇히게 됐어요. 왜병은 장작불에 철통을 얹어놓고 불을 질렀지요.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장례를 치르려고 관을 준비해 뚜껑을 열었는데 모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새까맣게 타 죽은 줄로만 생각한 사명대사는 수염에 고드름을 달고 있었어요. 깨달음을 얻은 사명대사는 뜨거운 철통 속에 있으면서 오히려 춥다는 생각을 줄곧 했습니다. 이처럼 마음먹기에 따라 불가사의한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의 힘을 믿어야 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병에 걸렸지만 '나는 살 수 있다'라는 강한 신념으로 기도해 건강을 회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여기저기서 들을 수 있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평소 부정적인 생각을 지닌 사람은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컨테이너에 갇힌 선원처럼 쉽게 포기해 버립니다. 사실 가장 무서운 적은 자기 자신입니다. 누구보다도 압도적으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바로 자신이지요. 대부분 사람들은 긍정적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자신에게 속삭여 줍니다. 이처럼 긍정과 부정의 사고방식은 그 결과가 확연히 다릅니다. 이젠 긍정적인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육지장사 회주〉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연등시공전문기업 대광불교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화등
공단등
만월등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 시공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 E-mail : hskhsg@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